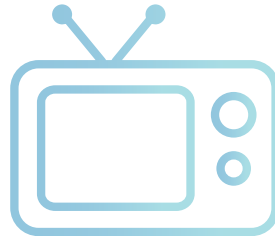


까칠함을 여는 가장 다정한 열쇠



M매경AX

한현정 기자



“그 배우 되게 까칠해.”

그를 만나기 전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었다. 답변은 짧고, 낯을 가려 인터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 준비는 되도록 많이, 각오도 단단히 해야 한다는 선배들의 조언이 뒤따랐다. 막 영화팀에 합류한 나 같은 신참 기자에겐 버거운 상대라는 결론. 그리고 다음 날, 나는 배우 류승룡 앞에 앉았다.

2011년, 겨울 끝자락이었다. 봄이 오기 전의 공기가 서울 시내를 무겁게 눌러 앉히고 있었다. 바깥 공기는 차가웠고, 나의 손끝은 얼어붙은 것처럼 굳어 있었다. 꼭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다.

당시 나는 줄곧 방송 담당 기자로 현장을 누비다 영화팀으로 자리를 옮긴 직후였다. 브라운관의 빠른 호흡에 익숙했던 내게, 스크린이라는 세계는 좀처럼 곁을 내주지 않는 성벽처럼 느껴졌다. 현장

은 더 조용했고, 질문은 더 길어졌으며, 답은 그보다 더 깊어야 했다. 그 간극이 나를 더 작게 만들었다. 그날은 내 이름 석 자를 걸고 맡은 첫 영화배우 1:1 인터뷰였다.

배우에겐 영화 ‘평양성’을 마치고, 서늘한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아이들’의 개봉을 앞둔 시기였다. 훗날 그를 대중스타 반열에 올린 ‘고지전’과 ‘최종병기 활’이 세상에 나오기 직전이기도 했다. 연극 무대에서 수십 년 내공을 쌓은 베테랑이었지만, 상업 영화라는 거대한 매체 인터뷰의 문법에는 그 역시 아직은 낯설어하던 때였다.

당시 충무로에서 그에 대한 평가는 ‘연기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곁을 잘 내주지 않고, 작품 홍보와는 거리가 먼 배우’였다. 팀장은 A4 두 장 분량의 질문지를 요구했고, 나는 그 종이를 뽁뽁하게 채운 뒤 거의 외운 상태로 인터뷰에 임했다.

질문의 순서를 머릿속으로 떠올리며 한 문장이라도 틀리지 않으려 애썼다. 준비만큼은 완벽하다고 믿었다.

삼청동의 한 카페,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두 잔과 녹음기, 구겨질까 조심스럽게 내려놓은 질문지가 놓여 있었다. 녹음기의 빨간 불이 켜지는 순간, 내 심장은 그보다 훨씬 더 빠르게 뛰었다.

어김없이 나의 목소리는 떨렸고, 질문 들은 맥없이 힘을 잃었다.

“배우님, 연기의 꿈은 언제부터였나요.”

“...자연스럽게요.”

“경험해보지 않은 시대와 인물을 표현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대본에 충실했습니다.”

“전작과 전혀 다른 결이라, 더 어렵지는 않았나요?”

“그게 배우가 하는 일이니까요.”

틀린 말은 없었지만, 그 어떤 문장도 기사로 옮길만한 건 없었다. 당황한 채 다음 질문지로 시선을 옮겼지만 글자가 눈에



드라마 김부장 촬영장 스틸. 프레임TPC

들어오지 않았다. 인터뷰는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았다. 20분 만에 모든 질문이 끝났고, 남은 건 무거운 침묵과 패닉 상태의 나였다.

“기 싸움에서 밀리면 끝이야.”

팀장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이미 셔츠 등쪽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겨울 한복판에서 혼자 다른 계절을 지나고 있는 기분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한 채 다시 배우의 눈을 보았다.

그때 머릿속을 스쳐 간 생각은, 내가



드라마 김부장 촬영장 스틸. 프레임TPC

그보다 경험이 부족하고 이 작품에 대해 더 깊이 알지도 못한다는 자각이었다. 그렇다고 질문만 바뀌가며 역지로 시간을 채우고 싶지는 않았다. 문제는 준비의 양이 아니라, 그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지 못한 나의 미숙함이었다.

결국 나는 고백했다.

“배우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영화 인터뷰는 오늘이 처음이라 많이 부족합니다. 질문이 너무 뻔했죠.”

고개를 숙였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과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는 마음이 동시에 올라왔다. 잠시 후,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기자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그 한 문장이 멈춰 있던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했다.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얼굴에는 나보다 더 큰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세를 바로 고쳐 세우고 의자를 당겨 앉았다. 그러고는 테이블 위의 커피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벌써 다 식어버렸네요. 이제라도 한 모금씩 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컵을 들었다.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그 역시 한 모금. 우리는 동시에 아주 짧게 웃었다.

“자, 아까 질문, 다시 해주실래요?”

인터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다. 질문은 같았지만 답은 전혀 달랐다. 말과 말 사이 끊김은 사라졌고, 장면이 생겼고, 감정이 담겼다. 인물에 대한 해석과 고민, 연기를 준비하며 겪었던 시간이 자연스럽게 풀려나왔다. 같은 질문을 하는 나의 태도도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나는 그 순간, ‘묻는 사람’이 된 기분을 처음으로 느꼈다.

인터뷰가 끝난 뒤 그가 먼저 사진을 찍자고 했다. 함께 어깨를 맞대고 지은 미소. 그게 내 16년 기자 생활에서 취재원과 함께 남긴 거의 유일한 사진이 됐다. 이후 화장실에서 스태프들이 “저렇게 웃으면서 인터뷰하는 거 처음 봐.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라며 소곤거리던 소리도 또렷하게 기억난다.

당시 나는 생각했다. 까칠함이라는 건, 어찌면 마음을 여는 방식이 서툰 것일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그 문은 예상보다 사



류승룡 배우 프로필. 프레임TPC

소한 계기로 열린다고 말이다.

시간이 흘러 나는 선임 기자가 되었고, 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가 됐다. 상업 영화와 거리를 두던 배우는 어느새 그 중심에 서 있었고, 현장에서 마주치는 그는 누구보다 능숙하고 다정한 사람이 됐다.



류승룡 배우 프로필, 프레임TPC

번 멈췄다가 다시 시작된 그날의 어색함과 따뜻함이 더 특별하기 때문이다. 연예인을 취재 대상이 아닌 한 명의 ‘사람’으로 마음 깊이 각인한 경험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누군가에 대한 날카로운 평판을 들으면 한 번쯤은 의심해 본다. 그날 내가 만난 것은 까칠한 배우가 아니라, 조금 서툴렀지만 충분히 다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건넨 그 다정함은, 연차가 쌓일수록 더 쉽게 잊히는 것들을 스스로 경계하게 만드는 기준으로 남아 있다. 🍷

매경AX 한현정 기자

나 역시 변했다. 이제는 인터뷰의 흐름을 읽고 조율할 줄 아는 사람이 됐다. 더 이상 녹음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의 인터뷰를 일부러 찾아가진 않는다. 그날의 기억을 박제된 풍경처럼 그대로 남겨두고 싶어서다. 취재원과 자연스럽게 안부를 나누고 관계를 이어가는 방식도 있겠지만, 나는 한 발치 떨어진 자리에서 오래 바라보는 쪽을 택했다.

재치 넘치고 분위기를 쥐락펴락하는 노련한 지금의 모습도 좋지만, 내게는 한